

주일예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2시
오전 (4부) 2시 4시
금요일예배 (1부)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예배
오전 (1부) 7시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전 (3부) 2시 4시
주요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1월 24일 (제717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끝이 아름다운 자

행백리자반구십(行百者半九十)라는 말이 있다. 백리 길을 갈에 있어 처음 구십리와 나머지 십리가 맞먹는다는 뜻으로, 끝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나는 요즘 교계나 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옛 어른들이 '초년 보다 늙어서가 좋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했다. 그렇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

성경의 인물들 보자. 시작은 힘들고 보잘 것 없었지만, 마지막은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들이 있다. 예전의 노예에서 총리대신이 된 요셉, 장인과 아들에게 쫓겨 다녔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노년에 부귀를 얻은 다윗,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 늦게 사무엘을 얻은 한나, 과부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 여섯 남자와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과천생한 우물가의 여인, 하다못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예수님 우편의 강도...

반면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비참한 자들도 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다윗, 버림받은 사울, 예수님의 제자에서 배반자로 전락한 가롯 유다, 52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치리했지만 교만함으로 문둥병을 얻고 버려진 웃사야... 지미카터는 재임시절보다 퇴임 후가 더 좋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옥중에서 살았지만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통령 퇴임 후 자살한 자도 있고, 돈 때문에 수사 받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 아랍권 독재자들의 최후도 실로 비참하다.

백 년 기른 나무도 자르는 데는 십 분이면 된다. 공든 탑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살피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대구, 부산에 이은 파라과이(Paraguay) 엔까르나시온(Encarnacion) 집회는 국내 및 해외 지교회의 선교역량을 점검할 뿐 아니라 선교역량의 축적 및 극대화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폐일언하고 바로 교회가 할 일은 곧 선교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벌이고 그 일의 성공을 위해 뛰는 일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자꾸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목이 좋습니다' 하는 안일한 생각, 안주하

이 이후에 당하는 고통은 실로 끔찍하기조차 하다. 집안에 칼과 피가 그치지 아니하고 종국엔 아들이 죽어갔다고 찾아오기까지 했다(사무엘하 15~18장). 다윗의 철저한 회개로 비록 죄는 사함 받았지만, 그가 짓값으로 당한 일들은 너무도 처절하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예가 어디 성경뿐인가? 잘 나간 사람들이, 공을 들여 힘겹게 쌓아 올린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안에서도 슬하게 목도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

닌가?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의 선택과 결정이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회 예배광고 때마다 목사님의 국내 및 해외 집회 일정이 거의 매달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걸 들을 것이다. '좀 쉬시며 교회 좀 돌보시지 왜 자꾸 나가시나?' 하는 생각들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교회는 병들고 만다. 우리 교회가 헌금의 대부분을 선교와 구제에 집중하는 걸 정말 감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제1의 목적이요, 교회가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내부의 일에 골몰할 때, 부패하고 병들고 세상의 지탄거



교회의 생명력은 오직 복음전파에 있다

고픈 생각은 좀 먹고살게끔 된 이 세상에 당연히 자리 잡기 쉬운 생각일 것이다. '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좀 쉬어가면서 하면 안 되나?', '이 만큼 했으면 좀 쉬라고 누가 뭐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수도공이 감지 못한다. 그런데 잠으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 그가 얼마나 잘 나갔던가? 젊은 날, 사울 왕에 쫓기며 온갖 고생을 했을 때에는 이러저러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때가 있었다. 그런 그가 주변 민족들의 발호를 제압하고 편안하다, 안일하다 할 때가 이르자 어떤 일을 했는가?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일을 덮고자 충신 우리아를 간첩터에서 죽게 하는 완전범죄를 획책하였다(사무엘하 11장). 그 일로 인하여 다윗

가? 지금 잘나간다고 그 영화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착각은 금물이다. 자칫 방심하여 100에서 1을 잘못 뺏다가는 졸지에 0(제로) 인생이 되고 만다. 깊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듯, 달리던 말은 달리다 죽어야 한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터전에서 목숨을 다하는 삶이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 아닐까? 황혼을 멋지게 불태우며 지는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정 후회 없는 삶이 아닐까 한다.

2013년,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자고 힘차게 외치며 시작했다. 진정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오늘의 생각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난 시간의 결정이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은 되돌릴 수도 없는 것 아

리가 된다. 지금의 한국 교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모두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게을리 하고, 스스로의 아성을 쌓으려는 그릇된 출발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며, 헤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란 것만 알아두기 바란다.

이번 파라과이 집회는 2013년의 마지막 해외집회다. 부디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목사님의 건강과 집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교회를 돌보며 지키는 일이고, 반드시 그 날에 목사님이 받는 상을 함께 받는 일임을 기억하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파라과이 집회

일시: 2013년 11월 18일(월)~ 30일(토) 장소: 엔까르나시온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1:12~17)

감사는 우리 인생의 성장촉진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범사(凡事)’는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습관화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벌어진 범사, 즉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아들 암살됨을 피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라고 감사했고, 바울 역시 그가 주리고 헐벗고 때 맞으며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파랑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2:13)라고 감사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범사에 감사했던 청교도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국 제임스 1세의 종교탄압이 극심해지자 102명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 영국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1620년 9월, 7개월 동안 노동으로 사들인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출발합니다. 그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거센 풍랑과 싸우며

이제 우리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러시아의 대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발 달린 동물이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강하며 교만하며 횡행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딤후3:1-2).

자고로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
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생각
하는 경
향 이
있



습니
다. 감
사가 몰
벤 사람
은 시련

136편의 말씀처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자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들은 해가 뜨겁다고 불평하고, 밤은 어둡다고 불평합니다. 반찬이 없다고 불평하고, 일하는 게 힘들다고, 남들처럼 자가용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느냐고 불평했고(출14:11), 마실 물이 없다고(출15:24),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성을 높이는(출16:2) 등 그들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너희에

게 행하리니...”(민14:27-28).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즉 40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년간 광야에 거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민14:29-38).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10:10).

제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목회 28년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악이라고 표현할 만큼 제 목회는 고난과 핍박과 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 계 에 서 제 명

을
당하고,
어 머 니
로
부터 집
에서 내
쫓기며, 가족이 떠나
는 등 안팎으로 견디기 힘든
세월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범사에 늘 감사했습니다. 왜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니 감사하고, 더욱이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사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나타내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하시고, 저를 통해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성장촉진제입니다. 감사는 인생이 쪽쪽 뚫어나가게 하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열 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만이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17:19)라고 하셨습니다. 아홉은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잊은 채 제 길로 갔지만, 이방인 한 사람 만이 감사하여 사례했더니 감동하신 예수님이 그를 육신의 병에서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더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

이 감사는 인간사 속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1:12)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내게 직분을 줬는지, 누가 나를 낳았는지, 누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는지 생각하면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국가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얘기해볼까요? 누가 나에게 지식을 함양시켜줬는지, 누가 가정을 이루게 해줬는지, 누가 나에게 사랑을 줬는지, 누가 신임인 나를 가르쳐줬는지 생각하면 학교 선생님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고로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처를 범한 후 나단의 충고를 듣고 깨달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과 신앙의 향양제요, 방부제며, 소독제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늘 악한 것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소독하며, 썩지 않도록 하며, 결립들이 없도록 제거하는 것이니 곧 만사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에서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100:4, 할렐루야!)

감사를 실천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자

65일 동안 망망대해를 지나 신대륙 아메리카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토병과 인디언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해 겨울 동료 44명이 죽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봄, 인디언 추장으로 부터 감자와 옥수수 종자를 얻어 농사를 지었고,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첫 수확한 것으로 감사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풍토병, 인디언의 추격 등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 땅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은 감사의 기도였고,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얻은 첫 수확물로 감사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이끄는 자와 이끌리는 자

뱀의 꼬리는 늘 뱀의 머리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역할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뱀의 머리는 기가 찬 제의였지만 역할을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꼬리는 눈도 없고 코도 없는 상태라서 무작정 앞으로만 가는 바람에 시냇물에 빠지기도 하고, 온통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다가 결국은 불이 붙은 장작더미로 들어가 온몸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건 또는 어떤 조직이건 이끄는 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끄는 자의 역할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끄는 자의 역할 못지않게 이끌리는 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끌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끌리는 자이고, 교회에서는 목자는 이끄는 자, 성도는 이끌리는 자, 그리고 사회에서는 경영자가 이끄는 자, 하위 조직원이 이끌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질이 다를 뿐입니다.

이끄는 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진실입니다.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자만이 조직을 장기적으로 화합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아니하여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아

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투명한 생활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역사사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결정된 사안은 자발적인 동행을 유도하여 좋은 결실과 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끌리는 자는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성실과 충성입니다. 이끄는 자의 명령에 일단 순응하고 성실심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실한 현황 보고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매사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고 거짓됨이 없이 보고하는 것이 이끄는 자의 판단을 올바르게 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신실한 의견제진입니다. 이끄는 자의 명령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중하게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이끄는 자로 하여금 재고의 기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끄는 자와 이끌리는 자의 역할을 필요한 덕목에 맞추어 잘 수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관섭 장로

kwansup1029@hotmail.com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숲 속의 왕인 사자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숲 속의 식구들이 앞을 다투어 병문안을 왔습니다. 사자에게 밭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우만 이 대열에서 빠졌습

니다. 그러자 평소엔 여우와 사이가 좋지 않던 이리가 누워 있는 사자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자님! 숲 속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폐하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여우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펴시 사자님이 이참에 돌아가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 것입니다." 그러자 누워 있던 사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내 이 놈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여우를 잡아 사형토록 하라" 했습니다. 그 때 여우가 사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동물 밖에서 이리의 말을 엿들은 터라 여우는 침착하게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께서 병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옹하

다는 약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맘을 누그러트리며 "그래? 약은 구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우는 "옹한 의원이 말하기를 이리의 가족을 벗겨 그것으로 몸을 사할 동안 감싸고 있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 시로 이리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사탄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잠17:20).

시편 15편에는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중심편집실



::Praise the God::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결혼식 때 신부들이 입는 하얀 드레스는 '순결'을 상징한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여 평생을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기도 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들이다. 신부로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예복을 입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채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영적 예복을 깨끗케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신다(요일 1:7-10).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더러운 마음에 계실 수 없다. 오직 회개하여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니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세웠고(고전 3:16-17),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직후,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고 강력하게 증거했다(행2:38).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자들은 생명의 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고(계22:14), 또한 이 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자가 될 수 있다(딤후 2:20-21).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다(마5:8). 그러니 교만과 욕심, 불평, 시기과 같은 내 속의 모든 불순물들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고 또 씻어, 영생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복된 삶을 살자.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며칠 전, 북한이 이달 초 강원도 원산을 비롯한 7개 주요 도시에서 80여 명의 주민들을 무더기로 공개처형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원래 북한 형법에 따르면 국가전복음모나 테러, 민족반역죄나 고의적인 살인죄 등에 한해 서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엔 처형된 주민들은 북한 당국에서 급하는 남한의 드라마·영화를 반입하여 보았거나 음란물을 유통했다는 등의 혐의로 처형당한 것입니다. 이는 민심 동요나 자본주의 기운의 확산을 막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도, 그런 여러 혐의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죄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소지'와 '종교 활동'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무속 신앙이나 점술에 대해서 2000년대부터 조금씩 묵인해왔지만,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체사상이 기독교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해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지하교회에 참석하다 적발되면 공개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 복인 줄 알아야 더 큰 복이 됩니다. 성경을 마음껏 읽고,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저 복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할 수 있다는 '경험'

::정훈, 그 아름다운 이름::

어린 시절, 우연히 하늘에서 UFO를 보게 된 형제, 못다하고 히비토는 그날로 우주비행사를 꿈꿨다. 20여 년이 흘러 동생 히비토는 진짜로 NASA에 들어가 일본인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되지요. 회사에서 잘려 백수가 된 형 못타는 그런 동생에게 엄청난 질투와 자극을 받고, 우주비행사에 도전하게 됩니다. <우주형제>라는 만화책의 내용입니다.

그 중 주인공 히비토에게 찾아온 위기는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달에서 죽을 뻔한 사고를 겪은 후, 우주복 헬멧만 쓰면 숨이 턱 막히고, 어마어마한 공포가 엄습해오는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우주복 헬멧을 쓸 수 없다는 건, 다시는 우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좌절한 그가 재활치료와 현실로부터 도망치려 할 때, 그의 치료를 맡은 이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주문을 걸고 의식을 바꾸려고 몇 번을 되뇌었던 것 아니야? 그럼 뭐래. 못하는 놈이 아무리 머릿

속으로 자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뇌어 봤자 그런 건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얻는 것이야!"

우리는 겁나고 두려울 때, 스스로에게 주문을 겁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런 것 따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대신, 별 거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해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백 번의 다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날부터 주인공 히비토는 "나는 다시 우주복 헬멧을 쓸 수 있다"는 경험을 얻기 위해 모자라든지 토끼 탈같이 헬멧과 비슷한 것들을 하나씩 써보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재활치료를 시작하지요. 그렇게 만화책은 끝이 납니다.

제가 스무 살 때였습니다. '미래에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10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미친 듯이 그림만 그렸던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미래에 장학생으로 될 것 입학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지요.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얻은 건. 그 후 저는, 예전의 저였다면 못했을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끌리앗을 무서워하는데 다윗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타고난 담력도 하루아침에 생긴 용기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경험을 그가 해봤기 때문이지요. 처음엔 무서웠겠지만 한번 사자의 입을 찢어 새끼 양을 구했던 경험을 얻자, 끌리앗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작은 것이라도 '난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얻어 보세요. 당신 안에 더 큰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경험이 큰 능력을 이뤄낼 것입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1958년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 만에 그 행복은 끝이 났습니다. 국가 전복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감옥에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사랑은 식지 않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의 사랑은 편지를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

신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나누던 맛있는 음식과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은 내게는 영원히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식지 않는 그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랑'으로 칭송을 받았습니

다. 세월이 흘러 27년 만에 노인이 되어 출옥하게 된 만델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하루도 잊지 못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이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동안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달라져있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을 꿈꾸는 아내와 온건주의자인 만델라는 생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기에 마침내 법정에서 이혼확정 판결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영원하지 못하며 자신의 자존심이나 우의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요,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중풍(뇌졸중)은 겨울에 위험하다

중풍은 세계적으로 매년 1,500만 명이 걸리는 병이며, 11월에서 3월 사이 겨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맥보감에서는 "대체로 사람이 마흔 살이 넘어서 기운이 쇠약할 때에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기뻐하거나 성을 내어 기가 상하며 중풍이 온다."고 했다. 실제로 중풍은 기운이 쇠약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비만해졌을 때 잘 온다. 다시 말해 빈혈, 탈수, 비만 등이 중풍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그리고 피임약을 먹을 때에는 9배, 담배를 피울 때에는 3배 정도 발생빈도가 높다. 물론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을 때도 발생률은 올라간다. 또한 고혈압환자의 48%, 고지혈증이나 당뇨병환자의 15%에서 중풍이 올 수 있다.

중풍은 졸지에 발생하지만 미리 알 수도 있다. 동맥보감에서는 "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감각이 둔하여 쓰기 불편하거나 손발의 힘이 약할 때, 또는

힘삼이 약간 쎈다는 것이 전조증인데, 이런 전조증이 있으면 3년 안에 반드시 중풍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언어와 지각장애, 안면근육이 바들바들 떨리거나 갑작스러운 경련, 심장 이상, 급격한 두통, 시력 장애나 눈의 이상, 어지럼증, 귀울림증 등이 중풍을 예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느낀 환자 가운데 3분의 2가 5년 이내에 중풍을 일으켰다.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 소금을 적게 쓰고 무염간장이나 대용소금을 사용한다. 고지혈증환자라면 지방섭취를 줄여야 한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계란 노른자, 오징어, 간, 마요네즈, 명란젓, 생선 등의 섭취를 줄이고 고기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먹도록 한다. 음주에 관하여는, 하루 한 두 잔 술을 마시면 술을 안 마시는 경우보다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

나 과음은 분명 해롭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비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추어준다. 특히 고혈압환자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며 뒹뒹일기기 등은 좋지 않다. 그리고 추운 날씨나 이른 아침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당뇨병환자의 경우 식후에 운동하는 것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 운동 강도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하고, 차츰 강도를 올리도록 하며 주 3~4회 운동하는 것이 좋다.

예년보다 강한 추위가 빠르게 찾아왔다. 추운 겨울,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늘 기도하는 헌정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4).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Q&A

Q: 집에 걸어 놓은 성화나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우상이란 인간들이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동상이나 조각품들이 우상이 아닌 것은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간의 금부처는 조각품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앞에서 절하고 소원을 빌며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우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성화 속에 그려진 장면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는 것이 십자가나 성화를 부착하는 목적이라면 결코 우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벗어나 십자가나 성화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섬긴다면, 그것 자체가 자칫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서 혹시라도 우상숭배 심리로 발전할까 염려하여 부착을 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십자가나 성화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약한 영을 물리치거나 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정에 십자가와 성화를 부착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말씀을 걸어 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호등

▶감시신호

▶파란신호

▶빨을싸우는것보다

자키는것이중요한법

양심에따라걸어온내일

주의범반자키며

호트림언어

같이가리라

朋友